

고립무원의 계엄해제 항거...민주화 촉구 투쟁으로 번졌다

'1979년 비상계엄' 어떻게 5·18 광주 학살로 이어졌나

전남대 총학생회 5월초부터 "계엄령 해제" 등 요구... 전국적 시위 확산
서울 소재 대학 총학회장들 돌연 해산... 광주선 시민 등 시국성토대회
18일 새벽 0시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 7공수여단 공수부대 광주 투입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1979년 발령된 비상계엄이 어떻게 5·18 광주 학살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하기 전,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던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직후다.

박 전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한 정부는 10월 27일 새벽 2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최규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대하고 같은 날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선포했다. 이때 전두환씨를 주축으로 한 '신군부'는 그동안 규합해 온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유신철폐와 긴급조치 9호 해제, 정치범 석방, 대통령 직선선거 등을 요구했고, 대학생들은 긴급조치 9호 등으로 구속된 학생들을 신학기에 복학시킬 것을 요구했다.

개혁 이후인 1980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대학가 시위가 불붙으며 총학생회 부활, 학원 자율화·민주화, 어용교수 퇴진 등 요구가 터져 나왔다.

5월부터는 각 대학에서 학원 민주화를 넘어 계엄해제와 전두환 퇴진 등 정치적 요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남대 총학생회 또한 5월 초부터 민주화 목소리를 내 왔으며,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의 '민족·민주화 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제1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5월 14일까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시위는 5월 15일 절정을 이뤘다. 서울역 인근에 서울 시내 30개 대학교, 10만 명의 대학생이 모여 '계엄철폐'를 외치며 민주화 일정 제시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 서울 지역 대학교 총학회장들은 돌연 시위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서울역 회군'으로, 서울 곳곳에 공수부대와 장갑차 등이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대규모 유혈사태를 우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에서 민주화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올랐다. 16일에도 광주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의 학생들과 일반시민 등 5만여 명이 참가해 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성토대회를 개최했다.

5·18 당시 전남대 들불야학 학생들과 '투사회보'를 제작·배포했던 전용호 작가는 "당시 인구 65만명 수준인 광주에서 5만명이 모여 시위를 하니, 사실상 광주 시민 전체로 소문이 퍼져 있던 상황"이라며 "전두환이 누군지도 잘 모르던 시민까지도 한 마음으로 뭉쳐 공분을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5·18 시민군 일원으로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활동했던 이재의씨는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대로 시위가 격화되다간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공포감보다는 '민주화 열기가 이만큼 뜨겁구나' 하는 고요함이 더 컸다. 그래서 서울역 회군 소식을 듣고도 하루라도 더 집회를 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씨의 집권 성공을 위해 야권과 노동계, 학원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전씨가 1980년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 취임 후 작성한 '학원대책방향' 보고서가 근거다. 보고서에는 대학가 시위가 대정부 전복을 목표로 한 2단계 투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강력 진압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신군부는 5월 들어 국회 정상화 등 논의가 활발해지자,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경우 집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쿠데타'를 실행했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전국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국방부장관과 군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白紙) 의결서를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정부는 '포고령 10호'를 내리고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 등 사전검열, 대학 휴교, 태업·파업행위 등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등을 강요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차단할 것을 공포했다.

18일 새벽 0시를 기해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전남대, 조선대에는 7공수여단 공수부대가 투입됐으며 광주 시내 각 전문대 관공서 등에도 계엄군이 배치되고 대학생 수십명이 계엄군에 연행됐다.

전용호 작가는 "광주 대학생들은 '을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항전 의지를 불태웠다"고 한다. 계엄령 전국 확대 이후인 18일 오전, 전남대생 200여명은 휴교령에 반발해 전남대 정문 앞으로 몰려들어 '계엄 철폐'를 외쳤다.

계엄군은 시위 학생이 붙어나자 진압봉을 휘둘러 강경 진압을 시작했고, 이에 학생들은 일시 후퇴했다가 금남로로 모여 '계엄 철폐', '전두환 타도' 등 구호를 외쳤다.

이 때 계엄군은 돌연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7공수여단이 남문을 불문하고 진압봉과 군함발, 개머리관, 대검 등을 휘두르며 무자비한 진압을 펼친 것이다.

계엄군의 폭력을 목도한 광주시민들은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쳐 계엄군에 대항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시작이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980년 5월 16일 전남대 학생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계엄 철폐', '전두환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으로 집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수능 수학 '미적분 쏠림' 여전...두 명 중 한명 선택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수학영역 선택과목 중 미적분을 택하는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입시업체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중 절반 이상이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택했다.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자는 22만7322명으로, 전체 수학영역 응시인원의 51.3%를 차지했다.

확률과 통계가 20만2266명으로 45.6%였고, 기하는 1만3735명으로 3.1%에 그쳤다.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2022학년도 39.7%에서 2023학년도 45.4%, 2024학년도 51.0%, 2025학년도 51.3%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은 2023학년도 48.2%에서 올해 45.6%로 2.6%포인트 떨어졌고, 기하는 같은 기간 6.4%에서 3.1%로 반토막이 났다.

수험생이 미적분을 많이 택하는 이유는 표준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이 도입된 이후 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이 높은 현상이 계속 이어졌다.

작년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는 137점, 미적분은 148점, 기하는 142점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중로학원은 올해의 경우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 140점, 확률과 통계 135점으로 5점 차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미적분에서 두 문제 정도를 틀려도 확률과 통계 만점과 표준점수 최고점은 비슷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의대나 자연계 상위권 학과를 노리는 수험생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도 미적분을 택하며 과반의 응시자가 미적분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화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일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자료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84.3%는 사회탐구를,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은 각각 68.3%와 57.2%가 과학탐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 도입 이후 4년 연속 이과생이 유리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문·이과 통합 지원하는 무전공 전형 등은 문과생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합천 '전두환 공원' 명칭 변경 청원 5만명 돌파

국회 상임위 회부 예정

경남 합천군의 이른바 '전두환 공원'의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목표 청원 동의 수인 5만명을 돌파했다.

생명의 숲 살리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국회전자청원 웹 사이트에 게시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청원을 게시한 지 23일만이다. 목표 동의 수를 달성한 데 따라 해당 청원은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이 청원은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게시됐다.

공원 이름 '일해'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의 아호 일해(日海)에서 따 왔다.

일해공원은 지난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5만3724㎡ 규모의 공원으로, 합천군은 2007년 공원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바꿨다. 공원 표지석에는 지금도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런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한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인퇴 후 받는 국민연금, 우리의 인연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NPS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행위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달러,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부정관성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동부 건조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 지정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주)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